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웰 헬스와 함께 뉴욕주 의료 서비스 종사자를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유타주로 파견한다고 발표

인터 마운틴 헬스케어는 과거 뉴욕주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수십 명의 의료 서비스 종사자를 파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와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가 유타에 최소 30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주 최대의 의료 제공업체인 인터마운틴 헬스케어(Intermountain Healthcare)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마운틴 헬스케어는 과거 노스웰을 비롯한 다른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으로 수십 명의 의료 종사자를 파견했습니다. 뉴욕주는 필요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및 장비를 제공할 것이며, 우선 파견되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은 이번주 일요일 유타로 이동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과거 전국에서 우리가 받았던 호의에 보답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전국의 비상 사태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타주 최대의 병원 네트워크인 인터마운틴 헬스케어 병원 시스템(Intermountain Healthcare Hospital System)으로 의료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유타와 유타의 병원 시스템은 관대하게도 대형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노스웰 병원 시스템(Northwell Hospital System)에 수십 명의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노스웰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S) 인력 약 30명을 비롯해 필요한 PPE 및 장비를 우선 유타로 보낼 것입니다. 저는 Herbert 주지사와 모든 유타주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호의를 잊지 않고 보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미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최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로 미국 내 코로나 치료 환자수가 최대인 노스웰 헬스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ichael Dowl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여기 뉴욕에서 절정에 달했을 때, 인터마운틴 헬스 시스템은 의사와 간호사 등 60명이 넘는 최전선

인력을 파견해주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지원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이 질병에 대한 싸움을 돕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도시와 주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지원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뉴욕주는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에 PPE 및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 Cuomo 주지사는 7월 29일 뉴욕주가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한 곳의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7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조지아주 사바나](#)의 코로나19 핫스팟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에 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7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텍사스주 휴스턴](#)의 코로나19 핫스팟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에 검사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7월 13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검사 및 접촉 추적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7월 10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플로리다](#)에 코로나19 약물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tel:518.474.8418)

구독 취소